CSU Monthly 2026년 7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WEEKLY Headline

- 6월 첫째 주: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선정·운영
- 6월 둘째 주: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최종 승인
- 6월 셋째 주: **조선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사업 '우수 성과'… '반도체융합학과' 인재 양성 주도**
- 6월 넷째 주: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연구진과 현장 네트워킹

조선대학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2025년 대학원 반도체융합학과 신설·2026년 반도체광공학과 개편
지방대학활성화사업·반도체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성과
첨단산학캠퍼스 중심 차세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

조선대학교가 반도체 소재·소자·공정·패키징과 광학 기술을 아우르는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하며 차세대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첨단패키징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7년간 총 10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선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와 36개 첨단패키징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을 통해 교내 반도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첨단반도체소재·소자 패키징 융합전공'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25년 개설한 대학원 '반도체융합학과'를 통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소재, 소자, 공정, 패키징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강화하며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배출에 주력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존 광기술공학과를 '반도체광공학과'로 개편하고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0여 년간 축적한 광학 분야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광반도체, 레이저 응용, 광정밀계측, 반도체 공정 및 첨단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첨단산학캠퍼스의 약 100평 규모 클린룸과 반도체 공정·분석 장비를 활용해 현장 밀착형 실습과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하며, 차세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80인의 조선인’, 한라산 올라 미래 100년 향한 힘찬 도전

개교 80주년 맞아 학생·교직원·동문 등 대학 구성원 한자리에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도… 평화·연대·도전의 의미 되새겨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최고봉인 한라산에 올라 지난 8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조선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와 한라산 일원에서 ‘80인의 조선인 한라산 오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춘성 총장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 직원, 동문,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세대와 국적을 넘어 조선대학교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첫날인 26일 참가자들은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위령제단에서 참배하며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튿날인 27일에는 국토순례단 학생들과 합류해 총 80명의 조선대학교 구성원이 성판악 탐방로에서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 이들은 긴 산행 동안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과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에서 ‘80주년에 오른 80인의 조선인’이라는 행사의 상징성을 공유하며, 대학의 지난 8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의 힘으로 설립된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창학 정신을 되새기고, 학생·교직원·동문이 도전의 과정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제주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공감을 통해 지역 간 조화를 이루고, 세대 통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확산하며 사회적 화합에 기여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학교의 80년 역사는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쌓아 올린 도전과 헌신의 역사”라며 “오늘 한라산을 함께 오른 뜨거운 열정과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세대를 잇는 따뜻한 나눔,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밝히다

교육을 향한 고인의 뜻과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마음이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故 서관영 님 유가족,
조선대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故 서관영 님의 유가족은 6월 4일 생전 고인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인재 양성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조선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故 서관영 님은 생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설립에 대한 소망을 가족들에게 전해왔다.

기부금은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One 4 Your Chosun 천원의 아침밥' 기금으로 전달돼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조선대 의대 4회 졸업생, 졸업 50주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 전달

감사의 말씀

1976년 2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4회로 졸업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전국각지에서
과사로서 헌신해 왔읍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호남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문교부로부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조대학장 윤 양남입 박사)
저희가 의과대학 제4회 입학생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 졸업생 일동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조선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30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4회 졸업생 일동

1976년 졸업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4회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졸업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준 모교에 대한 감사와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뜻을 모았다. 발전기금은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1 **CSU Again 7만 2천**
100년을 향한 동행

2 **CSU 장미로드**
장미원에 나의 이름을

3 **One 4 Your Chosun**
하나로 더해지는 따뜻한 온기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7922/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